

7/5(화) 시편 129–135편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❷]

이스라엘은 암제당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129:1–2).

챙기로 간 밭에 깊은 고랑이 퍨이듯(129:3, 사1:6, 51:23 참고),

열방의 채찍은 이스라엘에 쓰라린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겐 <평화의 기원>조차 건네기 싫을 정도였습니다(하나님 백성의 의무, 129:8).

하나님은 억압의 <줄>을 끊고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129:4, 135편, 시2:3, 9:15–17)

하나님은 또한 <깊은 곳>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130:1).

죄로 인한 고통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릴 때(사51:10, 갤27:34 참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130:4, 7–8).

\*루터는 130편을 <성경의 훌륭한 거장이자 교사>라고 불렀으며,

웨슬리는 올더스게이트 회심을 경험하기 전, 130편의 노래 소리를 들었다고 전해진다.

순례자들은 평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안집니다.

젖 땐 아이처럼 아무 갈급함 없이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다.

모든 종류의 인위와 교만을 내려놓고(131:1, 벌3:4–11 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긴 것입니다(131:2–3).

순례자들이 <시온>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평안의 장소입니다(132:8).

순례자들은 그곳 <시온>에서 보금자리를 얻습니다(84편 참고).

<시온>은 풍성함과 기도의 응답,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순례자들은 한마음으로 <시온>을 향해 올라갑니다.

(132:15–16, 10–13, 133:1, 3, 대하6장 참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134:3)”

<찬양과 축복>, 이것이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❶ 주님 안에서 갈급함 없는 만족과 행복을 누립니까?

❷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립니까?

시편5권 (107-150편)

편	유형	편	유형
107	공동체 감사시	129	공동체 탄식시
108	혼합유형 (=57:1-11, 60:5-12)	130	개인 탄식시(참회)
109	개인 탄식시	131	신뢰의 노래
110	왕조 시편	132	다윗계약 제의기도문
111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3	지혜시편
112	지혜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34	제의기도문
113	찬양시	135	구속사 시편(찬양시)
114	찬양시	136	구속사 시편(찬양시, 공동체 감사시)
115	제의 기도문	137	공동체 탄식시
116	개인 감사시편	138	개인 감사시
117	찬양시	139	개인 탄식시(지혜시)
118	개인 감사시(왕조)	140	개인 탄식시
119	토라(지혜) 시편	141	개인 탄식시
120	개인 탄식시	142	개인 탄식시
121	신뢰의 노래	143	개인 탄식시
122	시온의 노래	144	왕조시편(1-11)
123	공동체 탄식시	145	찬양시(아크로스틱 알파벳)
124	공동체 감사시	146	찬양시
125	신뢰의 노래(공동체 탄식시)	147	찬양시
126	공동체 탄식시	148	찬양시
127	지혜시편	149	찬양시
128	지혜시편	150	시편서 결론 송영